

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삼석 무안군수

한·중 국제산단 하반기 착공

서삼석 무안군수는 “무안군 미래 성장동력의 3대 축인 한·중 미 래도시와 무안국제공항, 남악산도 시 활성화를 통해 꿈과 희망이 넘 치는 지역개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서 군수는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이 될 한·중 국제산단 단지는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되는 만큼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 상을 완료해 즉시 착공하고 2014 년에는 기반공사를 완료해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 으로 이전시키고 국내외 노선 개 설, 항공산업 유치, 공항이용 항공 사 재정지원 등 무안국제공항 활 성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도정이 들어선 삼합면 의 남악산도시가 읍으로 승격되는 첫해인 만큼 이곳 남악산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조기에 이전할 수

을 위해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종자지급률을 증대시켜 농업경쟁 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과 어선 어업 생산활동 지원으로 어민소득 을 늘리고, 가족사육 환경개선과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도 힘을 보태겠다.

공공기관 조기이전 지원

현재 조성중인 ‘청계 제2농공단 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광역상수 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 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던 수해상 습지, 소하천 등 자연재해지구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등도 확대하고, 직원 친절교육과 ‘고객만 족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통해 군 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 넓힐 것을 약속했다.

서 군수는 “공무원이 힘쓰(務), 만큼 군민이 편안(安)해 진다는 생 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칭송 받고, 사랑받는 공무원이 돼 ‘ 으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목포, 관광객 700만 목표 뚫는다

市,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 국내외 마케팅 강화

목포시가 올해 관광산업을 ‘성장상 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목포시는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 고 이미 조성돼 있는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2009년 630만명 ▲ 2010년 665만명이었던 관광객을 올 래 70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남 축산시책 10년연속 ‘우수郡’

가축시장 전자경매·귀농인 지원 큰 점수

해남군이 최근 전남도의 시·군 농 정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 수 상과 축산시책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해남군은 농정시책, 친환경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환경 친화형 축산, 산림소득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남군은 올해도 고품질 쌀생산기

호’ 등 목포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 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 객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초청 캠 퍼 등 해외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목포 대표축제 정 체성 확립을 위해 해양문화 관련 프 로그램을 발굴하고 ‘해상 카니발’ 프 로그램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유달산권’을 비롯한 5대 관광 거점별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 광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유달산권’은 만호진 복원 및 역사 공원 조성,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삼학도권’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 행하고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요 트 마리나 확장 등을 통해 해양레저 중심의 체험형 관광지로 기능을 확충 해 나간다.

‘북항권’은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완 공해 해양테마와 수산자원을 활용한 복합관광지로, ‘고하도권’은 역사·해 양·휴양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지 로 개발한다.

‘갯바위권’은 ‘목포 춤추는 바다분 수’를 대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해상 보행로 등 각종 하드웨어 확충 과 소프트웨어를 보강해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육성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거점별 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 광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유달산권’은 만호진 복원 및 역사 공원 조성,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삼학도권’은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 행하고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요 트 마리나 확장 등을 통해 해양레저 중심의 체험형 관광지로 기능을 확충 해 나간다.

‘북항권’은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완 공해 해양테마와 수산자원을 활용한 복합관광지로, ‘고하도권’은 역사·해 양·휴양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지 로 개발한다.

‘갯바위권’은 ‘목포 춤추는 바다분 수’를 대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해상 보행로 등 각종 하드웨어 확충 과 소프트웨어를 보강해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육성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바닷속 발견유물 책 발간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 준)는 최근 바닷속에서 발견·신고된 중요유물을 수록한 도록 ‘바닷속 유 물, 빛을 보자’를 펴냈다.

이번 유물도록은 지난 1967년부터 2008년까지 발견·신고된 유물(244건 1913점)에 대한 지역별 출토양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학술적 의미가 큰 233 점을 선별해 유물설명과 사진을 게재 했다.

도록에 수록된 유물은 고려청자, 분청사기, 도기 등 도자기류를 비롯 해 고대 동전, 총포, 마제석검 등 선사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새얼굴

“법질서 확립·경찰혁신 7대과제 추진”

김원국 목포경찰서장



“기분과 원칙에 충실하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감동지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김원국(53) 목포경찰서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경찰혁신 7대 과제를 지 속 추진하는 한편 소통과 화합으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어 나가겠다”며 “주어진 책무와 기대에 부응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출신 인 김서장은 전남대 행정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남경찰청 기동대장, 광주경찰청 경비계장, 제주경찰 청 생활안전과장, 나주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양자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석기자 dss6116@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건식 김제시장

새만금배후 신산업도시 조성

“미래 김제 100년의 역사를 다 시 쓴다는 각오로 초심을 잃지않 고 최선을 다해 시정을 수행하겠 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해를 ‘새 로운 김제 100년! 그 초심을 다지 는 해’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만금시대를 주도할 지역 성장발전 도모 ▲글로벌 첨단 신 산업도시 기반구축 ▲대한민국 생 명농업도시 도약준비 등 3대 핵심 과제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평선 산단 연결개발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시 책’으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건설의 새 역사 ▲김제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 설계 ▲시정 종합조 정기능 강화와 전략사업 발굴 ▲ ‘부자농촌’육성을 위해 농업구조 를 획기적 개선 ▲미래를 여는 명 품 교육도시 육성 ▲시민 모두가 행복할 선진 복지도시 조성 ▲글 로벌 축제 ▲특화된 문화·관광도 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전 설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해 정부의 종합 실천계획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어업 회사 조기착공 ▲농식품 산업특구 시범지정 ▲방수제 착공구간 확장 ▲새만금고속도로 건설 등 시 발 전과 연계된 국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

다. 아울러 새만금방조제 준공에 따 른 행정안전부의 관할 결정에 대비 하고 지난해 11월 새만금지구 일부 구간 결정에 대한 대법원 소제기와 범시민운동 전개 등 강력한 행정 적·법적 대응을 펼쳐 해 김제 뒷 을 반드시 확보할 각오이다.

또한 ‘김제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지평선산단단지 조성과 연결개발을 통해 국가산단단지 조 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 첨 단 농기어플러스터 구축, 뿌리산 단 국가시범단지 조성 등 기업하 기 좋은 최적의 여건을 갖춰 새만 금배후 첨단 신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역대소득 2000농 육성

‘미래를 여는 명품 교육도시’ 육 성을 위해 김제사랑 장학재단과 지평선 학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내고장 학교보내기에 실천하고 김제장 학숙 건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수 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에 나선다.

이 밖에도 7년 연속 최우수 문화 관광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해 지역 경계 활성화를 견인하는 내실있는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한편 세계적 인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벽골제 복원과 대호소설 ‘아리 랑’ 기행벨트 조성, 동헌·내아 사 적지정비 등 농업을 테마로 과거 와 현재, 미래를 집적화해 세계적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복안이다. 서부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 북



“이한치한... 한파속 얼음 즐겨요” 최근 영하권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학을 맞은 학생들 이 전주 실내 빙상장을 찾아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지난 1997 년 문을 연 전주 실내 빙상장은 총 면적 4362㎡에 링크장 2면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시 제공>

농촌 인구감소... ‘홀로 졸업’ 늘어

익산 망성초 등 9곳...군산 무녀도초는 졸업생 없어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 지면서 전북지역에서 졸업생이 전혀 없거나 1~2명에 그치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본격 적인 졸업시즌을 앞두고 도내 750개 초·중·고교의 졸업 예정자 현황을 조 사한 결과 군산 무녀도초 1곳이 졸업 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졸업생이 1명인 학교는 익산의 망 성초, 성남초, 군산의 내흥초, 비안도 초, 오봉초, 김제의 청운초 등 9곳으 로 집계됐다.

2명인 학교는 군산 선유도초와 부 안 장신초, 임실 신덕초, 전주 원동초, 진안 안천중 등 9곳이었으며 3명인 학교는 정읍 정남초와 남원 금지동초 등 21곳이었다.

순창 강천산, 지난해 입장수입 8억원

지난 1981년 우리나라 최초 근린공 원으로 지정된 순창 강천산(해발 583.7m)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000여명이 강천산을 찾아 8억1300 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09년 94만3000여명·7억 7000만원에 비해 ▲입장객 4.9% ▲입 장료 수입 15% 증가한 것으로, 지난

이들 학교를 포함해 졸업생이 5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의 10.2%인 77곳 에 달했다. 졸업생이 적은 곳은 대부 분 농어촌의 벽지학교로 학생이 줄고 있고, 이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한 곳 도 적지 않다.

반면 전주 서신중은 졸업생이 도내 에서 가장 많은 557명에 달했으며, 이 를 포함해 도시지역의 11개 학교가 4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중석도여객선 설 휴항

군산~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국제 여객선 ‘세다오 호’가 다음달 1~11일 기간동안 설맞이 정기 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도국제훼리(주)는 휴항기간동안 선내 시설물 정비 및 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객들 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유일의 국제여객선인 석도국 제훼리(주)는 군산~중국 석도간 주 3항차(화·목·일요일 일항 오전 9시· 출항 오후 6시)를 운항하고 있다. 씨 다오호는 750명의 여행객이 승선할 수 있는 대형 카페리로 침실·휴게실· 면세점·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전주 한옥마을 으뜸 명소 10선에

전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 을이 지난해 11월 슬로시티(Slow City) 지정에 이어 한국관광의 ‘으뜸 명소’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문화체육관광 광부의 ‘꼭 가봐야 할 지역관광 으뜸 명소 10개소’에 뽑혔다”고 11일 밝혔 다.

으뜸명소에는 한옥마을과 함께 제 주 올레길, 서울 북촌, 순천 순천만, 창녕 유모골, 안동 하회마을 등이 포함됐다.

으뜸 명소로 지정된 곳에는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주시 일민영 문화경제국장은 “이번 선정으로 한옥마을은 이제 한국 전통문화와 관광의 아이콘이 됐다”면서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2003년 22만3000여명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연 10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비룡폭포와 계 곡 주변 정비 ▲야생화 식재 ▲맨발 체험로와 물놀이 시설정비 등 차별화 된 볼거리와 즐거거리 제공에 나섰 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